

교환학생 보고서

이름	한글	정성욱	소속(학부/과)	토목공학과
파견 학기	2학기		파견 국가	캐나다
파견 대학	Niagara college			

❖ 경험보고서는 이후 파견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성실히 작성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교환학생에 관심 갖게 된 계기 및 지원 동기

교환학생 설명회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교환학생에 지원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세 가지 중 첫 번째로는,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보다 선진국 문화를 경험하고 배우면서 견문을 쌓을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면서 소극적인 성격을 변화시키고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출국 전 준비 사항과 주의 할 점(상대교 서류준비, 비자발급 절차, 항공권 구입, 수강신청 및 기숙사 신청 내용 포함)

우선 다른 학교에 대해서는 경험을 하지 않아 잘 모르지만, 캐나다 나이아가라 컬리지는 학교와 외부 기업을 통해 신청을 하기 때문에 항공권, 해외보험, 입학서류, 홈스테이 등 기타서류는 기업 측에서 준비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필요한 생필품과 옷가지만을 들고 갔었고, 알려주는 방식대로 ESTA 신청하시면 됩니다.

■ 파견대학 소개(크기, 지리적 위치, 기후, 주변 환경 내용 포함)

나이아가라 컬리지는 두가지 캠퍼스로 나이아가라 온더레이크 캠퍼스와 웰랜드 캠퍼스로 나뉘어 저있고, 저희가 수업을 듣게 되는 곳은 웰랜드 캠퍼스입니다. 학교가 위치한 웰랜드는 캐나다 동부 온타리오주에 속하여 있는 조그마한 시골 동네로 토론토와의 거리는 차로 2시간 거리입니다. 학교 주변에는 조그마한 술집과 편의점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이동하면 생필품 가게, 영화관, 슈퍼마켓 식당 등등 여러 가지 가게들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처음 교환학생을 갔을 때에는 한국 초가을 날씨로 살짝 더웠고, 10월 부터는 살짝 쌀쌀하였습니다. 겨울에 온도는 영하 20도 까지도 내려가지만 한국과 비교하였을 때 엄청나게 춥다고 느끼진 않았습니다. 저는 추위를 많이 타지 않아 내복 없이 두꺼운 외투정도로 생활 가능하였습니다.

■ 수업 및 학사 관련 사항(수강과목 포함)

나이아가라 컬리지 EAP 과정 수업으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Reading & Writing, Speaking & Listening, Grammar 이 세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본인의 영어 실력이 충분하다면, 추가로 본과 수업을 신청 할 수 있지만 제가 갔을 경우에는 모든 교환학생이 이 세 가지 외의 수업은 따로 듣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대학교와 성적을 책정하는 방법에는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EAP 과정에는 1부터 5까지 레벨이 나뉘어 저있고, 1부터 4까지는 전체 성적이 50%를 넘는다면 다음레벨로 넘어갈 수 있고, 레벨 5는 70%를 넘겨야 합니다.

■ 숙소 및 거주 관련 사항(기숙사비, 생활비 내용 포함)

처음 2달은 학교에서 지정해주는 홈스테이에 의무적으로 지내야 하며 그 이후 1개월 반 정도는 본인이 홈스테이를 옮기건 룸렌트로 다른 사람과 주방 화장실을 공유하며 같이 지내건 본인의 선택입니다. 홈스테이 비용은 한달에 CAD\$750입니다. 제가 있을 때 환율로 대략 70만원 정도 입니다. 기본적으로 홈스테이에서는 점心和 저녁을 지원해주고 아침은 집에 있는 씨리얼, 빵으로 간단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홈스테이마다 규칙과 생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 파견대학 국제팀 프로그램/서비스 및 교환학생 활동 소개

국제학생 등록금에는 프로그램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어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매주 금, 토 다양한 액티비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로 토론토 방문, 카약, 동물원 등등 날짜 2일전에 학교 홈페이지 이벤트란을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학교에 International Office 가 있고 학교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 문제는 모두 이곳에서 관리를 합니다. 저는 이용하지 않았지만 일처리가 한국에 비해서는 많이 느린 편이라고 하고 그리고 학교에 한국계 직원이 있지만 출장을 자주 나가셔서 도움을 청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 학교 부대시설 및 추천 하고 싶은 동아리

학교에는 미용실, 헬스장, 체육관, 식당, 카페 등이 있고, 모두 이용 가능하고 헬스장은 학생증으로 무료로 사용 가능 합니다. 식당에는 초밥, 서브웨이, 팀홀튼, 피자 가게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학교에 Knights 라는 운동 동아리가 있지만, 국제학생이 신청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문화적 차이 및 향후 파견 학생들을 위한 TIP

모든 것의 가격에 13~14% 세금을 내야하며 팁은 10~30% 추가적으로 지불해야합니다. 하지만 프렌차이즈 식당에서는 팁을 추가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 카드 계산을 할 때 가끔 팁란이 나오지만 내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큰 배낭과 두 개의 캐리어를 옷으로 가득 채워 가져갔지만, 딱히 많은 옷이 필요하지 않았고 현지에서 싸게 사서 입을 수도 있으니 짐은 최소화 하는 게 좋았습니다. 돌아올 때 짐의 양을 최소 1.5배라고 생각 하시면 좋습니다. 결정하기 전에 충분히 조사를 하고 이전 경험자의 조언도 들으셨으면 합니다.

■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느낀 점, 배운 점

우선 짧은 기간 동안 영어 향상에 많은 기대를 하지는 않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영어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항상 기다리고 배려하는 현지인들을 통해서 여유를 느낄 수 있었고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또 캐나다에 가고 싶습니다.

■ 기타(사진, 건의사항, 등)